



먹고 마시는 문화명소 '쿵폴리' 10일 오후 광주시 동구 산수동에 자리한 제3차 광주폴리 '쿵폴리' 개막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카페 '쿵폴리'를 둘러보고 있다. 서울 경리단길을 문화명소로 만든 장진우 셰프가 참여한 '쿵폴리'는 빈 한옥을 리모델링한 한식레스토랑 '침미장'과 카페 '쿵폴리'로 구성된다. 장 셰프에게 직접 교육을 받은 지역 청년 7명이 '맛있는골목협동조합'을 설립해 연중무휴로 운영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17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세월호 침몰 절체절명 순간 몸 컨디션 좋지않아 관저에 있었다는 박대통령

박 '세월호 7시간' 답변서 현재 "미흡하다 다시내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000일 만에 자신의 '7시간 행적'에 대해 밝혔지만 수 백명이 탑승한 세월호가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대형 참사에 매우 안이하고 부적절한 대응이었다는 지적이 다. <관련기사 3면>

박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10일 현재에 제출해 공개한 박 대통령의 행적 자료에서 "그날 공식 일정이 없었고 신체 컨디션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하기로 했다"며 이후 집무실에서 밀린 보고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당일 전반적으로 이메일, 팩스, 인편으로 전달된 보고를 받거나 전화로 지시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처음 인지한 것은 오전 10시께 국가안보실로부터 세월호 침몰 현황 '1보' 보고서를 받고서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조 노력을 최대한 동원했어야 할 대형 참사에 굳이 관저에 머무르며 후속 조치를 위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현재 속도 구제적인 답변 수준이 당초 요청에 못 미친다면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1보 보고 이후 10시 15분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해 상황 파악 등을 지시했으며 10시 22분엔 김 실장에게 다시 "살살이 뒤져 철저히 구조하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전화가 실제로 있었다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했다.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오전 내내 국가안보실과 사회안전비서관 등으로부터 세월호 구조 상황 보고서를 받았으며 그사이 정확한 시간은 불명확하지만, 안봉근 당시 제2부속비서관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점심을 마친 박 대통령은 그 직후 즈음에도 정호성 당시 제1부속비서관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았으며, 오후 3시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광주·전남 초·중·고 '학생 절벽' 본격화

광주 20만명 선 붕괴...교육청, 통폐합 등 대책 마련 부심

전남 중학생 5만명 이하로 ... 2020년 20만명 무너질 듯

광주 초·중·고등학교 학생 20만 명 선이 무너졌다. 전남도 한 때 7만명이 넘었던 중학생 수가 올 들어 5만 명 밑으로 떨어지는 등 '학생 절벽'에 직면했다.

급기야 광주교육청은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100년 전통의 초등학교를 통폐합하는가 하면, 특성화고 신설 등 변화된 교육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

10일 광주교육청에 따르면 '2017~2021학년도 중기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올해 예상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19만6517명으로, 한 때 26만7248명(2007년)에 달했던 초·중·고교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

일반고 신입생만 전년도(1만6154명)에 견줘 1868명 줄어들었고 전체 중학생 수도 사상 처음 5만 명 이하인 4만8322명(지난해 5만1499명)으로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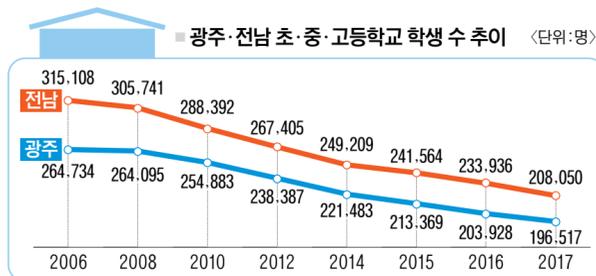
전남도 심각하다. 30만3223명(2004년)

이전 초·중·고등학생 수는 가파르게 감소하면서 올해 학생 수를 '2017~2021 중기 학생배치계획'을 통해 20만 명 대(20만 8050명)로 예측했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최저치다.

전남교육청은 특히 중학생은 3200여명이 줄면서 5만 명 이하(4만9900명)로 내려앉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남도교육청은 더 나아가 2020년이면 초·중·고교 학생 수가 19만9911명으로 20만 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6만7043명이던 고교생은 5년 뒤인 2021년에는 4만9225명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게 전남교육청의 '암울한' 예상이다.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교육청도 비상이 걸렸다. 광주교육청은 김옥자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에게 제출한 '학생 수 급감에 따른 테스크포스 결과보고서'를 통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초·중학교



통·폐합 ▲직업교육특성화고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옥자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대책 뿐 아니라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청년이 미래다 기록보관소 송재영 ▶18면
KIA 호랑이들 'V 11' 향한 산뜻한 털갈이 ▶20면

"개헌은 공존과 연대 '호남정신' 따르는 것"

손학규 광주일보 인터뷰



것으로 결국 영남 패권주의"라며 "이미 실질적으로 이뤄진 정권교체라는 명분만 갖고 호남이 영남패권주의에 기생할 수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10일 "개헌은 호남정신을 따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의 한 사무실에서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호남정신, 5·18광주정신은 공존과 연대의 정신이다. 역사적으로 호남정신은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인터뷰 전문 5면>

손 전 대표는 특히 "개헌은 호남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헌을 통한 책임총리에 의한 국회 구성으로 호남이 정권을 창출하고 권력 분점으로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 대통령은 승자독식 구조로 인한 계층적·지역적 독점을 유지하는

는 없는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

그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총리론에 대해 "손학규가 총리 하려고 강진 토굴에서 내려왔겠느냐. 총리실이 아말로 나를 격하하는 의도적 마타도어"라며 "패권세력은 손학규가 두려워 총리실을 퍼뜨리고 은퇴를 거론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더불어민주당 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야권통합론에 대해서는 "오만한 패권주의의 극치이고 기득권 논리에 불과한 것으로 통합 강요는 구시대적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50-YEAR
Ginseng Research

Sulwhasoo

피부 자생력과 방어력을 키우는 인삼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활력을 누리다

설화수 자음생크림

천천히 변화를 겪는 피부는 어느 순간 크게 힘을 잃습니다
피부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힘을 전하는 설화수 자음생크림
인삼 꽃의 응축된 힘으로 방어력을 강화해 피부 손상 예방에 도움을 주고 인삼 뿌리의 강력한 효능 성분으로 피부의 자생력을 높여줍니다. 더욱 강화된 인삼결정체로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활력을 누리세요

· 1966년 설화수 브랜드의 모태인 ABC인삼크림이 탄생되었으며, 이후로 50년간 인삼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 유명백화점이나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